

2019년 8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대속에 강세 래리 커들로 “미국 중산층 10% 감세안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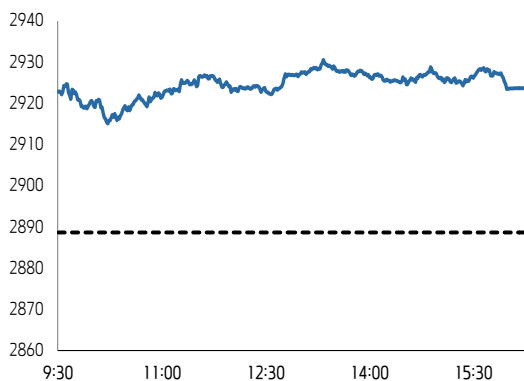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미 상무부 조치, 커들러 발언

미 증시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임시면허를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이 결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평가 속에 기술주와 소매유통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 더불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안정을 보이자 금융주도 강세. 한편, 래리 커들로 위원장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점도 우호적(다우 +0.96%, 나스닥 +1.35%, S&P500 +1.21%, 러셀 2000 +1.02%)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특히 애플(+1.86%)을 비롯한 기술주, 반도체, 에너지, 소매유통 업종이 강세를 보임 애플의 경우는 트럼프와 팀쿡의 만남에서 애플과 관련된 관세 완화 기대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줌. 더불어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 유예기간을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점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 물론 상무부는 기업들이 대체 업체를 찾는 시간을 연장했을 뿐이라고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분석.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반도체 업종과 소매유통업체들도 동반 상승

한편,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중국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알려진 것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발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 여기에 다음주 추가적인 전화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질적인 협상이 재개가 이뤄 진다면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 와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 더불어 커들로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중산층에 대한 10% 감세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주장하며 미국 발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임. 최근 독일과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미국 또한 경기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939.90	+0.66	홍콩恒生	26,291.84	+2.17
KOSDAQ	594.65	+0.52	영국	7,189.65	+1.02
DOW	26,135.79	+0.96	독일	11,715.37	+1.32
NASDAQ	8,002.81	+1.35	프랑스	5,371.56	+1.34
S&P 500	2,923.65	+1.21	스페인	8,733.30	+0.73
상하이종합	2,883.10	+2.10	그리스	828.30	+4.58
일본	20,563.16	+0.71	이탈리아	20,715.49	+1.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 강세

애플(+1.86%)은 트럼프와 팀 쿡의 만남 이후 관세 완화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마이크로 (+3.35%)과 인텔(+1.57%), 브로드컴(+1.83%), 퀄컴(+2.17%), 자일링스(+1.38%) 등 반도체 관련업종 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미 상무부가 화웨이 거래 제한을 90일 유예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코노코필립스(+4.80%), EOG리소스(+2.49%) 등 에너지 업 종은 국제유가가 급등 하자 상승했다.

에브비(+3.31%)는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와 관련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 했다. 이 달 말에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 돼 머크 (+1.33%), 화이자(+1.53%) 등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프랑스가 부과 한 디지털 세금법과 관련된 CompTIA 공청회 소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힘입어 아마존 (+1.31%), 알파벳(+1.80%), 페이스북(+1.34%) 등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JP모건(+0.90%), 웰 스파고(+1.94%)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10%	대형 가치주 ETF(IVE)	+1.17%
에너지섹터 ETF(OIH)	+3.97%	중형 가치주 ETF(IWS)	+1.12%
소매업체 ETF(XRT)	+1.27%	소형 가치주 ETF(IWN)	+1.24%
금융섹터 ETF(XLF)	+1.02%	대형 성장주 ETF(VUG)	+1.28%
기술섹터 ETF(XLK)	+1.52%	중형 성장주 ETF(IWP)	+0.8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5%	소형 성장주 ETF(IWO)	+0.81%
인터넷업체 ETF(FDN)	+1.02%	배당주 ETF(DVY)	+1.11%
리츠업체 ETF(XLRE)	+0.9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1.5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1%
바이오섹터 ETF(IBB)	+1.13%	미국 국채 ETF(IEF)	-0.48%
헬스케어 ETF(XLV)	+0.96%	하이일드 ETF(JNK)	+0.33%
곡물 ETF(DBA)	-0.33%	물가연동채 ETF(TIP)	-0.38%
반도체 ETF(SMH)	+1.65%	Long/short ETF(BTAL)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8.01	+2.14%	-0.41%	-8.17%
소재	357.08	+0.77%	+0.37%	-2.35%
산업재	630.49	+1.00%	+0.75%	-3.44%
경기소비재	926.72	+1.25%	+0.72%	-4.57%
필수소비재	624.42	+0.94%	+3.19%	+1.70%
헬스케어	1,056.18	+0.99%	+0.93%	-0.30%
금융	444.53	+0.99%	+0.69%	-4.33%
IT	1,391.95	+1.56%	+2.53%	-2.83%
커뮤니케이션	166.64	+1.39%	+1.41%	+0.52%
유틸리티	312.07	+0.69%	+1.40%	+2.10%
부동산	241.00	+0.90%	+1.35%	+5.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등락에 그칠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5%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4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537 계약 순매도 한 가운데 0.20pt 하락한 255.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1.4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속에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연장하자 마이크론(+3.35%)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폭이 컸다. 지난 7 월 말 이후 마이크론은 모건스탠리,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와 니드햄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하반기 NAND 와 DRAM 에 대한 수요-공급 안정화가 이어질 것’ 이라며 투자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글로벌 증시 상승과 상품선물시장 강세, 국채금리 상승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은 우호적이다.

다만,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된 점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최근 비둘기적 성향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이어 오늘은 매파 성향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 두 위원 모두 의견권을 가지고 있어 9 월 FOMC 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물론 CME 는 FEDWatch 를 통해 9 월 FOMC 에서 금리인하 확률을 100%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최근 30%까지 올라갔었던 50bp 인하 확률이 5%로 크게 감소 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도 금리는 인하하겠지만, 기대하는 것처럼 큰 폭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국 야간선물 시장은 하락 전환 했으며,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하회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0% 상승 했다. 이는 예비치(yoy +1.1%) 를 하회했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1.6% 상회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독일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정책을 발표하자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더불어 예멘반군이 사우디의 유전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변화 없이 보합권에서 출발 했으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경제가 여전히 꽤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큰 필요성을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엔화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속에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남아공 란드화, 브라질 헤알화 등 신흥국 환율은 대부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6%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두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을 90일 유예 시키자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가 높아진 점, 그리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인하 할 큰 필요성을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한 점이 영향을 줬다. 최근 비둘기적 성향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이어 의결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의 금리 동결을 시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9월 FOMC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각국의 부양정책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8% 하락했으나, 철근은 0.2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6.21	+2.44	+2.33	Dollar Index	98.374	+0.24	+1.02
브렌트유	59.74	+1.88	+2.00	EUR/USD	1.1078	-0.11	-1.21
금	1,511.60	-0.79	-0.37	USD/JPY	106.64	+0.24	+1.27
은	16.940	-1.06	-0.77	GBP/USD	1.2126	-0.19	+0.41
알루미늄	1,794.00	+0.11	+1.36	USD/CHF	0.9817	+0.35	+1.28
전기동	5,774.00	+0.52	+0.56	AUD/USD	0.6764	-0.22	+0.18
아연	2,262.00	+0.04	-0.70	USD/CAD	1.3324	+0.41	+0.64
옥수수	374.50	-1.64	-4.65	USD/BRL	4.0746	+1.71	+2.25
밀	472.50	-1.05	-0.79	USD/CNH	7.0721	+0.39	-0.44
대두	866.50	-1.51	-1.45	USD/KRW	1211.00	+0.02	+0.04
커피	94.80	-1.61	-2.57	USD/KRW NDF1M	1211.48	+0.34	-0.5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606	+5.25	-3.91	스페인	0.129	+5.40	-9.70
한국	1.183	+1.30	-9.70	포르투갈	0.154	+5.20	-8.20
일본	-0.223	+0.50	-0.60	그리스	2.016	+6.60	-13.10
독일	-0.648	+3.70	-5.60	이탈리아	1.434	+4.40	-26.60